이기는 삶

그러니 감사하라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뛰어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체력이 뛰어난 것도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다. 뭐하나 변변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덕분에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윗사람이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助言)을 구하고 협조(協助)를 구하며 배워야 한다.

덕분에 자만(自慢)이나 교만(驕慢)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틈이 없다. 돈이 있다고 갑질하는 꼴이나, 자신이 좀 더 안다고 모르는 사람을 하시(下視) 무시(無視)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자연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의 보람이 된다. 그러니 가난하고 재주가 없는 것이 오히려 감사(感謝)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인성(人性)이 좋은 사람이다. 머리는 좋으나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사기꾼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또한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잘 나가는 듯하지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상사 및 동료들과 좌충우돌하다가 결국 퇴사(退社)를 당하게 된다.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는 묵묵히 시키는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출발이 미천하다고 해도 생각이 멀쩡하고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다면 열심히 하면 된다. 물론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목표가 있으면 더욱 좋겠다. 그렇지만 목표를 세운다고 해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그 노력의 대가로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성심성의(誠心誠意)를 다하라. 성실(誠實)과 정직(正直)을 무기로 삼아라. 그리고 나에게 일을 맡겨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아프지 않은 것이 최고의 바램이다. 꿈은 고사하고 당장 아프지 않는 것이 급선무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보다는 당장 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프지 않고 끼니 거르지 않고 사는 것에 감사(感謝)해야 한다. 무엇보다 빚지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친인척들로부터 빚을 끌어오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했는데 실패(失敗)했다고 하자. 10~20년을 빚 갚고 대출금 갚는 데 온갖 힘을 다 기울여야 한다. 거기에 자식 교육비와 생활비를 더하면 여가 생활이라는 것은 아득한 꿈일 뿐이다. 여유(餘裕)가 없다.

그렇게 전력투구하여 마침내 빚 다 갚고 나면 생활이 좋아질 것 같지만 덜커덕 건강에 이상이 생겨버리면 그동안의 수고가 몽땅 헛수고가 되어 버린다. 너무나 허무하다.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 병들어 드러눕게 되면 그 신세가 얼마나 불쌍한가? 잠깐 아프고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일어나지 못할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병원비 감당하느라 그 인생은 또 쪽박 찬다. 그러니 빚지지 않고 아프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한다. 좀 없으면 어떤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승리제단은 기독교도 불교도 아니다"

승리제단은 어떤 특정 종파에서 갈라져 나온 기성종교의 한 부류가 아니라 유·불·선 및 모든 종교와 학문을 통합하는 완벽한 진리의 종교이다. 완성의 하나님이 나오신고로 이제 세계는 점차 모든 분야에서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어둠과 분쟁의 시대는 가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질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무덥고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이다. 화를 내는 것은 몸에 독소를 차곡차곡 쌓는 것과 같아서 피가 썩는다. 마음먹은대로 피가 변한다. 건강과 젊음을 부러워하면서도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 있으랴! 규칙적인 생활과 요가로써 누구나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하나님으로 거듭나 보실까요?

어깨 근육을 풀어 오십견 예방에 좋은 자세~

효능 : 회전근개를 360도 돌려주어 어깨관절 유연성 증대. 팔뚝 다이어트. 여성의 고관절을 수축시키고 골반 근육, 하체 뒤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 준다.

동작①: 단다사나로 양 다리는 골반 너비로 뻗어 발끝은 몸 쪽으로 당긴다. 양손은 어깨 위로 올린다.

동작②: 팔꿈치를 밖에서 가슴 쪽으로 모으면서 크게 원을 그린다. 팔꿈치가 올라갈 때 숨을 마시고 내쉴 때 내려온다. 앞뒤 방향으로 10회 3세트.

효능: 척추 기립근 강화, 폐 기능 향상, 복근과 앞목이 펴짐, 뒷목 유연성, 앉아 일하는 사람.

동작③: 단다사나로 숨을 마시면서 둘째 셋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끼우고 숨을 내쉬면서 꼬리뼈를 바닥에 붙이고 하복부, 가슴, 경추 순으로 들어 올리면서 시선은 위 사선을 바라본다. 10초 유지 5회.

척추신경계 자극 효능: 척추신경계와 내장의 각 장기를 자극해서 척추신경의 압박에서 해방되어 척추신경이 자유로워지면 배가 편안해져 소화력이 높아지고 변비 예방 도움.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동작④: 단다사나로 숨을 마시면서 양팔을 수평으로 열어준다. 숨을 내쉬며 오른손을 왼발 밖에 놓고 왼팔을 등 뒤로 쭉 펴준다. 가슴을 들어 시선은 손끝을 바라본다. 10초 유지. 양쪽 3세트.*

격암유록 新해설

제83회

주님(정도령)을 고도로 사모하고 초초로 바라보라

鷄鳴聲 계명성

大聖紀元二九時 대성기원이구시에
走靑林주청림에 寸土落 촌토락을
運有其運時有其時운유기운시유기시
不失此時불실차시섬마섬마
衆人寶金守保財物 중인보금수보재물
雲霧中天一脫世운무중천일탈세로
活人積德 활인적덕하려하나
主人 주인몰라 伏亞伏亞 불아불아
余四正 여사정이 餘三數 여삼수로
彼此一般合意事 피차일반합의사을
時至不知 시지부지할터인가

대성인의 기원(紀元)은 삼팔갑을목(三八甲乙木)이니 대성인이 출현할 때에는(二九이구는 十八십팔이요 十八십팔은 木의 파자) 동방의 청림도사(靑林導師=정도령)가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야 하리라. 운에는 다 그 운이 있고 때도 다 그 때가 있는 법이니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자신 속의 마귀를 죽이기 위해 엄마(정도령)가 부를 적에 빨리 오소.

많은 사람들이 금은보화와 재물을 지키고 간직하려 하다가 구름과 안개가 가득한 하늘이 일시에 벗겨지듯 세상이 홀연히 변하면 그때서야 뒤늦게 활인적덕(活人積德) 하려하나 주인공(십승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내(하나님) 사정으로 말하면 정도령의 운이 오기를 일각이 여삼추같이 기다려왔는데 삼위일체 삼인동행의 삼수(三數)로써 너희와 내가 하나 되기로 합의(약속)한 일을 때가 되었는데도 모른다고 할 터인가?

天眞爛漫道理道理 천진난만도리도리
嗟呼時運차호시운늣어간다
蛇奪人心사탈인심 彌勒伏미륵불을
不覺불각인가
頂上血汗崑指崑指 정상혈한곤지곤지
支離歲月지리세월길다마소

천진난만(天眞爛漫) 즉 조금도 꾸밈이 없이 순진하고 참된 것이 도의 이치라는 것을 잊었는가? 아, 슬프다! 시운(時運)이 늦어간다. 사탄 즉 독사 같은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서 생 미륵불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머리 꼭대기부터 온몸을 피땀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곤지곤지(崑指崑指)하면서 키웠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듯 기나긴 세월이라고 지루해하지 마소. 진사성인이 오시는 운과 그날은 언제인고?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이 되니라.

貴귀여웁다 우리阿只아지
十八抱子達窮達窮 십팔포자달궁달궁
六十一才白髮 육십일재백발이냐
知覺事理지각사리 靑春청춘일세
容天釰용천검을 갓었으면
均一平和主仰主仰균일평화주앙주앙
三共和合何時 삼공화합하시던고
通合通合天下通合 통합통합천하통합
可憐時事慘酷가련시사참혹하다
作掌作掌作掌作窮작장작장작장작궁

목운(十八=木=영모)이 아기를 안고(영적인 어머니가 아기가 되는 금운 정도령을 키우는 모습) '귀엽다. 우리 아기' 하면서 '어서 크고 자라라.(진리, 영적으로)' 61세면 백발노인이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천지공사와 영생의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청춘이니라.

정도령이 용천검(容天釰=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오면 누구나 다 하나같이 평화를 얻으리니 주님(정도령)을 고도로 사모하고 초초로 바라보라.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라.

천지인이 함께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때(삼인동행 삼인일체)가 언제인가? 통합하소. 통합하소. 천하가 다 통합하소. 그렇지 않으면 가련하게도 그날 그때 참혹한 세상일을 당하리라. 혈맥관통(血脈貫通)하고자 손뼉을 힘차게 치며 정도령의 영생의 진리를 찬양하라.

人王四維 인왕사유원말이냐
光明世界明朗광명세계명랑하다
孝當竭力忠則盡命 효당갈력충칙진명
表彰門立直界直界표창문립직계직계
擲柶大會 척사대회하고보니
無才能分明 무재능분명이하야
五卯一乞枏東伏出오묘일걸단동불출
길나라비活活道飛활활도비

인왕사유(人王四維)가 무슨 말이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인 정도령이 영생의 진리를 천하에 펼치니 온 세상은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세상이 되리라. 부모에게 효도를 함에는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해야 하고 국가를 위하여는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하면 표창문(表彰門)을 세우는 것과 같이 십승지(十勝地) 선경을 향해 곧게 바르게 나아가라.

세상사에 별다른 재능이 없음이 분명하나 윷놀이를 하고 보니 모 다섯에 걸(乞)한 번으로 넉 동이 단 동으로 나버리게 되느니라. 윷말 넉 동을 단 동으로 만들어 단 번에 나는 것이다. 모(묘) 다섯은 을묘 정묘 기묘 신묘 계묘를 말하고 걸은 세 발을 가며 양(未)을 의미한다. 이로써 28수(宿)를 그려놓은 윷판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단군의 후손으로 오신 미륵불(구세주)이 출현하여 살아 천당 영생의 도를 펴시니 죽어 천당 간다는 비진리의 세상이 끝나고 살아서 우주를 훨훨 날아다니는 세상이 되느니라. 천지 공사가 끝나면 이 세상이 불사영생의 신선이 사는 선경이 된다는 것이다.

堯舜亦有不肖子息 요순역유불초자식
末聖豈無放蕩兒只 말성기무방탕아지
世人莫睹浮荒流說 세인막도부황류설
改過修道不入地獄 개과수도불입지옥
欲明其理先知根 욕명기리선지근
末世二樹或一人 말세이수혹일인

성인이라는 요순(堯舜)에게도 불초자식(不肖子息)이 있었건만 말세 성군(목운)에게 어찌 방탕한 아이가 없겠는가? 세상 사람들이여! 뜬소문과 유언비어를 보고 듣지 말라.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성경신(誠敬信)을 다해 도를 닦으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그 이치를 분명히 알고자 하면 먼저 근본(불초자식이 있었던 말세성군 5도72궁 정도령)을 알아야 하리라. 감(람)나무 원체(元體)격인 목운(木運)과 지체(肢體=아들)격인 금운(金運)을 말하느니라. 또 한 사람이 있느니라.(여인 한 분) 목운과 여인 한 분, 금운이 삼위일체(금운 속에서 삼위일체가 완성된다)가 되며 삼인동행(三人同行)이다. 여인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밖으로 드러나는 천지공사는 목운과 금운의 두 분이 행하는 것이다.*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나를 이기는 길

악령을 제거하는 법

이와 같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물질이 각각 다르게 풍겨나간다. 쇠를 냄새 맡아 보면 쇠 특유의 냄새가 나고, 고무에서는 고무의 냄새가 나며, 흙에서는 흙냄새가 난다. 물질로부터는 물질 자체의 원소가 붕괴되어 떨어져 나오면서 그 입자가 후각에 와 닿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에서는 그 사람의 피의 작용에 따라 생각의 물질이 방사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악령을 쏟아내는 것이다. 그 악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 악령을 어떻게 제거하나요?

선생님: 이 사람이 척 바라보기만 하면 그 악령이 가루도 존재도 없이 사라진다. 부처님의 신은 일종의 광선인데 그 광선은 살마광선(殺魔光線)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악령을 죽여 없애고 있는 것이다.

악령을 일시에 제거할 수는 없나요?

선생님: 사람 속에 그 악령이 주체 영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주체가 되는 악령을 죽이려면 사람의 생명까지 해치게 된다. 그래서 그 악령을 일시에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사람의 주체가 되는 악령을 죽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생님: 이 사람은 사람 속에 마구니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부처님의 영에게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받아서 각자가 그 마구니를 죽여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 마구니와 생명이 분리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그 마귀를 죽여버리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마구니를 죽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 혼자서는 마구니를 없앨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선생님: 마구니를 이긴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서 혼자서 모든 마구니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일시에 마구니를 죽이면 사람의 생명까지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사람을 영생시키러 온 부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다 죽여버리면 말이 되는가? 그래서 한 사람씩 그 힘과 능력을 부어줘서 스스로 마구니를 죽이게끔 하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浜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